

심층분석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2026.03.31

1 장. 산업 분석

1.1 물류 산업의 정의와 시장 구조:

물류산업은 화물의 보관·운송·배송 등 공급망(Supply Chain) 전 과정을 다루는 산업으로, 크게 **택배/배송**, **계약물류(3PL)**, **국제운송(포워딩)** 등으로 구분됩니다. 택배는 개인/소호(SOHO)와 이커머스 물품의 **소량 다빈도 배송**에 특화되어 있고, 계약물류는 제조·유통기업의 **창고운영(W&D)**, **재고관리**, **포장 및 유통가공** 등 **공급망 관리(SCM)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국제물류(포워딩)는 해상·항공 운송주선을 통해 **글로벌 화물 운송**을 중개합니다. 전통적으로 물류산업은 **노동·자본집약적**인 구조였으나, 점차 **디지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1][2]. 국내 시장 구조를 보면, 택배 분야는 과거 민간 4 강(CJ 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과 공공부문(우정사업본부)이 경쟁했으나, **이커머스 업체의 자체 물류 진출**로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물류와 포워딩은 다국적 업체(DHL, DB 쉐커 등)와 국내 리딩 기업(CJ 대한통운 등)이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1.2 최근 3~5년 주요 트렌드:

최근 **이커머스 폭증**에 따라 국내 택배 물동량은 지속 증가했습니다. 실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211조 원에서 2023년 229조 원, 2024년에는 242조 원까지 확대되었으며[3], 코로나 19 기간 동안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물류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물류산업에는 **"배송의 즉시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리드타임 단축 서비스**를 기대하며, 업계도 **주 7일 배송**, **당일 픽업·배송**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4]. 예컨대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새벽·당일 배송 표준을 세웠고, CJ대한통운도 2024년부터 **'매일오네(O-NE)**'라는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4].

또 다른 트렌드는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입니다. **AI, 빅데이터, 로봇틱스**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가 급속히 확산하여, 사람이 수행하던 **픽킹·분류·적재** 작업을 **AMR(자율주행 로봇)**, **로봇팔**, **자동 분류 시스템** 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5]. 글로벌 선도 물류기업 DHL은 2020년 240건이던 **자동화 프로젝트를 2023년에 1만 건으로 확대**했고, **자율주행 지게차 도입으로 작업 효율 20%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5]. 전 세계 물류센터 자동화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510억 달러(7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6][7], UPS 등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자동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 중입니다[8]. 이러한 기술 혁신은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인력 구조 재편과 노동 이슈도 수반하여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9][10].

이 밖에도 **규제 환경 변화와 ESG 요구**도 최근 트렌드에 속합니다. 2020년대 초 **택배기사 과로** 문제가 대두되어 택배사들이 **분류 전담인력 투입** 등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고, 정부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기화물차 도입**, **포장재 감축** 등 **그린 물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 공급망 재편** 역시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영향을 미치는데, 미·중 분쟁과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어 동남아 등 신흥시장 물류 수요가 부각되고, **초국경 물류**도 성장세입니다. 실제 2022 년 약 107 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초국경 택배시장**은 **2026 년 173 조 원 규모**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1].

1.3 시장 규모와 성장률: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22 년 약 **37 억 건**, 2023 년 약 **39 억 건**으로 연평균 5~6% 성장하고 있습니다(쿠팡 자체 물량 제외 시 기준)[12]. **CJ 대한통운** 등 주요 사업자 기준 2020 년 대비 2024 년 물량은 증가했으나, **쿠팡의 자체 배송 전환으로 타사 물량 증가는 제한적이었습니다**[13]. 금액 기준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약 **7~8 조 원대**로 추정되며(건당 단가 2,200~2,300 원 내외 추산), 계약물류 시장은 이에 필적하거나 더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2025 년 연결 매출 **12 조 2,847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포워딩 부문 매출 감소에도 국내 계약물류(CL)와 택배 부문의 성장세가 견인한 결과**입니다[14]. 특히 **계약물류(CL)** 부문은 2023 년 3 분기 매출 8,613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고 신규 3PL 수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15]. **글로벌 부문**은 무역 물동량 감소 영향으로 2023 년 일시적 역성장했으나, 미주 등 **거점 시장의 CL 사업 호조**로 수익성은 개선되었습니다[16].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성장률 둔화에도 물류시장 자체는 견조한 중저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첨단기술과 서비스 차별화로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 물류 가치사슬과 핵심 수익 지점:

물류(value chain)는 **발송인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화물을 인수(집화)→거점 간 수송(간선운송)→지역 터미널 분류→배송인도(라스트마일)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국제물류의 경우 통관·해상/항공운송 단계 추가)**. 이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창고 보관/물류센터 운영이 더해지면 계약물류 서비스가 됩니다. **가치사슬상의 수익 구조를 보면, 포워딩(운송주선)은 매출 규모가 크지만 해운·항공 운임에 연동되어 마진이 낮고 변동성이 큼**니다. 택배/라스트마일 배송은 **노동집약적이라 단가 대비 비용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박한 편**입니다. 반면 창고/플필먼트 운영이나 부가서비스(포장, VAS) 등은 계약 형태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IT 기반 솔루션 제공 등 **고부가 서비스는 비교적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CJ 대한통운의 경우 포워딩을 포함한 글로벌 부문 매출 비중이 36.6%**로 가장 크지만 영업이익 기여는 **제한적**이고, 택배사업은 매출 30.8% 비중에도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 중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7]. 계약물류 부문은 약 30%대 매출 비중으로, **장기계약과 운영 효율화로 안정적인 이익원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물류기업의 핵심 수익원은 단순 운송보다는 통합솔루션 제공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단가경쟁력에서** 나오며, **최근에는 IT 기술 내재화**가 원가 절감과 신규 수익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18][19].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전통적으로 업계 1 위였으나, **쿠팡로지스틱스**의 급성장으로 **경쟁 구도가 급변**했습니다[20]. CJ 대한통운은 한때 시장점유율 50%를 넘겼으나, 2020 년 50.1% → 2023 년 44.1%로 하락했고, 2024 년 상반기에는 **쿠팡로지스틱스가 36.3%로 CJ 대한통운(28.3%)을 앞지르며** 택배 물량 기준 1 위를 차지했습니다[21]. **쿠팡**은 자체 물류 자회사 설립 후 공격적 투자로 2021 년 매출 1,155 억 원에서 2024 년 3 조 8,349 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흑자전환 후 551 억 원까지 끌어올리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습니다[22][23]. **쿠팡의 성장 원인**은 그간 쿠팡이 CJ 대한통운 등에 위탁하던 물량을 **직접 배송**으로 전환한 데 있으며, 이로 인해 **CJ 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가속화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17]. 쿠팡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물류센터망과 라스트마일 배송인력(쿠팡친구)**을 구축, **새벽배송·당일배송의 서비스 품질**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택배 2~3 위권인 **한진택배(한진)**와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진은 2023 년 택배 기준 점유율 약 15~20%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 7 일 배송 도입**을 준비하는 등 서비스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4].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약 10%대 중반 점유율로 4 위권이지만,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볼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차별화 전략으로 **'약속배송'**(지정일 배송 서비스)을 확대하여 **정시성과 고객지정 편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4]. **우정사업본부(우체국택배)**는 공공부문 사업자로 농어촌 등에서 역할을 하나, 민간 대비 운영 효율에서 뒤처져 점유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이 외 민간 중견사업자로 **로젠택배** 등이 있으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DHL, UPS, 페덱스(FedEx)**가 **통합물류 기업**으로 군림하며, 이들은 막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 DHL 은 최근 **물류 로봇 1 만 대 이상**을 창고 현장에 투입하고, UPS 는 미국 내 물류시설의 **68%를 자동화**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24][8], **물류 자동화 경쟁**에서도 선두를 달립니다. **아마존**과 같은 거대 이커머스 기업도 자체 물류망(Amazon Logistics)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여 전통 물류회사들과 경쟁·공존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IT 기술력과 데이터 활용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각되어, 물류기업들은 앞다투어 **AI 기반 최적화 솔루션, 실시간 트래킹 플랫폼**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외 물류산업 모두 **"규모+기술"**을 갖춘 플레이어가 시장을 주도하는 추세이며, 고객사들은 단순 운송사가 아닌 **종합 SCM 파트너**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2 장. 경쟁사 및 회사 포지셔닝

2.1 주요 경쟁사 개요 (국내):

- **CJ 대한통운**: 국내 물류 1 위 기업으로 **택배, 계약물류, 포워딩 등 종합 물류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친 **최대 규모 인프라**(터미널 190 여 곳, 배송차량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2 만 9 천대 등)와[25], 90 년 업력을 통해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강점입니다. 최근에는 **TES 물류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선도형 물류기업**을 지향합니다. 다만 **쿠팡 등장 이후 택배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신기술과 서비스 혁신으로 경쟁우위**를 재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20].

- **쿠팡로지스틱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자회사로, **쿠팡 배송망(로켓배송)**을 전담합니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 위(2024 년 기준 36%±)**까지 급부상한 신형강자로서, **플필먼트센터 + 라스트마일 배송인력**을 수직 통합해 **자사 주문에 대한 초고속 배송**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21]. **막대한 적자 투자**로 구축한 혁신적 서비스(당일·새벽배송)는 **고객경험 면에서 타사 대비 차별화**되었고, 규모 확보 후 **운영효율을 높여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23]. **약점**은 자체 플랫폼 주문에 집중된 **폐쇄형 모델**이어서 외부 화주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며, 향후 **3 자물류(쿠팡물류망 개방)**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단일 고객(쿠팡)** 의존도가 높아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입니다.
- **한진택배:** 한진그룹 계열로 오랜 전통의 물류업체입니다. **국내 최초 택배서비스 도입** 이력을 가졌고, 항공사/항만 등 그룹 계열 시너지를 활용한 **B2B 화물운송**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3 위권(약 15% 내외)**으로, 주로 **기업고객 택배**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점**은 그룹의 **항공 물류 인프라** 연계(대한항공 화물기, 해외 네트워크)와 **충성도 높은 계약 고객층**이며, **약점**은 투자여력과 규모 면에서 1 위와 격차가 크고 IT 투자·자동화 측면에서 **느린 혁신 속도**입니다. 최근 한진은 **택배터미널 자동화 투자, 주 7 일 배송 준비**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 화물(냉장식품, 의약품 등)** 분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그룹 계열 물류사로, **4 위권 택배사**입니다. **백화점·마켓 등 롯데 계열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볼륨을 확보하고 있고, **콜드체인(저온물류)** 역량을 보유하여 **신선식품 배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점**은 **유통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B2B2C 연계**(예: 롯데 ON 온라인주문 → 롯데글로벌로지스 배송)이며, **약점**은 **터미널·차량 등 물적 인프라 규모가 업계 1 위 대비 작고** 조직 문화가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근 **약속배송(지정일+정시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차별화에 나섰고, **해외 시장**에도 관심을 보이며 **베트남 물류기업과 JV 협력** 등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26].
- **기타:** 그 외 **로젠택배**는 중견 택배사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나 규모 면에서 선두권과 격차가 큼니다. **우체국택배(우정사업본부)**는 전국망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며, 군 단위까지 커버하는 **촘촘한 네트워크**가 강점이지만 기업 구조상 민간보다 혁신 속도가 느립니다. 최근 우체국은 택배시장 점유율 약 5~10%대로 추정되며, 민간 위탁 확대 등 효율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2.2 주요 경쟁사 비교 - 사업 포트폴리오와 강·약점:

국내 물류 상위사들은 공통적으로 **택배를 핵심 사업**으로 하면서, **부가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차이를 보입니다. **CJ 대한통운이 계약물류(CL), 건설물류(프로젝트 물류), 이사화물, 국제특송 등 광범위한 서비스 라인업**을 갖춘 반면, **쿠팡로지스틱스는 온라인 리테일 물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진**은 **항공화물·해운포워딩** 자회사를 통해 국제물류에 강점을 갖고 있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백화점 배송, 냉장택배** 등 그룹 유통과 연계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CJ 대한통운**은 2010년대 후반부터 **TES** 조직을 통해 **AI 풀필먼트, 자동 분류기(MPS, MP)** 등 첨단기술 자체 개발을 추진해 왔고, **대규모 물류데이터**를 축적하여 **최적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27][28]. 반면 **쿠팡**은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출신 인력을 투입해 **자체 물류 시스템**을 **모던하게 구축**했고, IoT 기반 재고관리, AI 배송예측 등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진/롯데** 등은 상대적으로 **IT 투자 규모가 작고** 핵심 기술은 **외부 솔루션 활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도 **물류 테크 스타트업과 제휴**하거나 **설비 자동화 투자**를 늘리며 대응 중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CJ 대한통운·한진·롯데**는 **3자물류(3PL)** 모델, 즉 **다수 화주의 물류를 대행**하는 구조이며, **쿠팡**은 **1자물류(자사화)** 모델입니다. 3PL 모델의 장점은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고 **규모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국내 1위 플랫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제휴**하여 셀러 대상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 공급망 관리를 대행하는 등 **B2B2C, B2B 사업**을 폭넓게 전개합니다. 반면 쿠팡 모델은 **단일 플랫폼 수요에 최적화**되어 높은 서비스 품질을 달성하지만, 특정 업황에 **성과가 연동**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자본조달을 통한 공격적 확장**으로 한국 시장 구조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2.3 CJ 대한통운의 포지셔닝:

CJ 대한통운은 스스로를 **“통합 SCM 솔루션 기업”**으로 정의하며, 단순 택배사가 아닌 **End-to-End 물류 파트너**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29]. 실제로 **B2C 택배**에서는 국내 최다 인프라를 통한 **볼륨 리더십**을 보유하고, **B2B 계약물류**에서는 제조·유통 대기업들을 다수 고객사로 확보한 **프리퍼드 파트너**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인도, 동남아 등 40여 개국에 거점을 두며 **글로벌 3PL 기업**으로 도약 중입니다. 2018년 미국 DSC 로지스틱스 인수, 베트남 배송사 지분 투자 등으로 **글로벌 M&A**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도 진행했습니다.

포지셔닝 측면에서 **CJ 대한통운**은 **“규모의 경쟁”**과 **“프리미엄 기술 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가격대는 업계 평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자체 개발 기술(TES)**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부가가치와 프리미엄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예컨대 **이커머스 풀필먼트 브랜드 ‘더 풀필(THE FULFILL)’**, **미들마일 운송솔루션 ‘더 운반’**, **라스트마일 전담 ‘오네(O-NE)’** 등 각 서비스에 브랜드를 부여하고, 고객사에 **맞춤형 물류 컨설팅**을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제공함으로써 단순 배송 단가 경쟁을 지양합니다[30][28]. **B2B2C** 영역에서는 네이버, 쿠팡 외의 다양한 온라인 셀러들에게 **중립적 3 자물류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는 **쿠팡로지스틱스와의 차별화 지점**입니다. 또한 **TES 혁신기술**을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등, 기술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022 년 말레이시아 등에 **자동화 물류센터 수출 사례**를 발표[31]). 요약하면 CJ 대한통운은 **볼륨과 범위를 바탕으로 시장 리더십 유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첨단기술과 글로벌화로 프리미엄 물류기업**으로 거듭나는 **하이브리드 포지셔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4 최근 주요 이슈 (3~6 개월):

- **시장 지위 변화:** 앞서 언급했듯 2024 년 들어 **쿠팡에 국내 물량 1 위 자리**를 내준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21].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 내부적으로 **위기의식과 혁신 가속화 노력**이 활발합니다. 2024 년 초 신년사에서 **"압도적 1 위의 책임 경영"**이 강조되었고, 택배 부문 조직개편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예: **반품 예약 앱 개선, 고객 응대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집니다.

- **신규 서비스 출시:** 2024 년 상반기 **'매일오네' 주 7 일 배송**을 본격 론칭하여 주말 배송 공백을 해소했습니다[4]. 또한 일부 지역에 **실시간 배송조회 정확도 향상 서비스**(예: 지도 기반 남은 거리 표시) 등을 시범 도입해 **즉시배송 니즈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퀵커머스** 트렌드에 맞춰 도심지 기반 **새벽배송 협업**(마켓컬리 등)도 진행하는 등, **속도와 편의성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두드러집니다.
- **신사업 및 투자:** CJ 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 및 충전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등[32], 향후 수소 물류 분야 진출 의지를 보였습니다.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 시 **수소 연료 공급망 물류**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TES 기술연구소를 통해 **물류 스타트업 투자**(로봇 업체, AI 솔루션 업체)에 적극적이며,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혁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2025 년 3 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물류 R&D 사업**에 참여해 **자율주행 로봇 및 AI 물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 **해외 사업 확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지에 풀필먼트 센터**를 개설하고 현지 기업과 JV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6]. 특히 말레이시아에 **TES 기반 스마트 물류센터**를 2022 년 선보여, 한국에서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을 현지에 맞게 적용했습니다[31].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로 포워딩 사업은 부진했으나, **미국 내 e 커머스 물류** 호조로 CJ 대한통운 미주법인은 수익이 개선되었고[16], 이를 바탕으로 **북미·인도 등지에 물류센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 및 노동이슈:** 2023 년 하반기부터 2024 년 초까지 CJ 대한통운 일부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져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전 허브터미널의 **알바생 감전 사고**, 상하차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수십 건의 안전규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33]. 이로 인해 CJ 대한통운은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격상하고 2024 년 상반기 공채에서 안전·보건 직무를 별도로 채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 포인트 지급(자녀학자금 등 연 810 만 원 상당 혜택 사례) 등을 도입하며 친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34]. 이 같은 ESG 경영 강화는 평판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3 장. CJ 대한통운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와 매출 구성:

CJ 대한통운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택배사업(O-NE), 계약물류(CL), 글로벌사업(포워딩 등)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 년 기준 매출 비중은 글로벌 36.6% (약 4 조 4 천억원), 택배 30.8% (약 3 조 7 천억원), 나머지 32.6% 가 계약물류 및 기타로 추정됩니다[17]. 즉 국내 매출 약 7 조~8 조원, 해외 매출 약 4 조원대의 규모입니다. 택배사업 부문에는 B2C 택배뿐 아니라 라스트마일 플랫폼 'O-NE' 서비스 전체가 포함되며, 계약물류(CL) 부문에는 창고 운영, 이커머스 풀필먼트(더 풀필), 내륙운송(육상운송·항만하역 등)이 포함됩니다. 글로벌 부문은 포워딩(국제운송주선)과 해외 현지법인의 계약물류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사업이 약 65~70%, 해외 사업이 30~35% 수준이며, 해외는 미주, 중국/동남아, 인도, 유럽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고객 산업별 구성은 공개 데이터가 제한적이나, 전자상거래·유통 분야 매출 비중이 상당하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소비재(FMCG), 화학, 자동차 부품 물류 등이 포함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CL 부문이 안정적 이익원을 제공하고, 택배부문은 시장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출렁일 수 있으며, 글로벌 부문은 포워딩 운임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입니다. 참고로 2025 년 연간 영업이익은 5,081 억원(전년대비 -4.3%)이었는데, 이는 매일오네 서비스 투자비용 및 3PL 신규센터 초기비용 등 일시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하락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35].

3.2 중장기 전략 방향:

CJ 대한통운은 2021 년 창립 91 주년을 맞아 "혁신기술기업(Technology-based Logistics Company)"으로 변모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36]. 2023 년까지 2.5 조원 투자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확장, 로봇·AI·데이터 등 첨단기술 확보, 800 명 이상의 최고급 전문인력 채용,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37]. 이 비전 아래 CJ 대한통운은 4 대 중점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① 이커머스 및 라스트마일 플랫폼 강화: 풀필먼트 인프라를 8 배 확대(수도권 신규 센터 구축, 3 온도 풀필먼트 확충)하고, 이를 택배거점·새벽배송망과 연계하여 전국을 커버하는 '이커머스 매트릭스'를 구축했습니다[38]. 또한 신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체계(예: 동네 기반 거점 배송, 공유경제형 배송 등)를 실험하여 소비자의 기존 경험을 초월하는 혁신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39]. 2022 년 말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 인근에 대형 이커머스 풀필먼트 센터를 건립한 것이 대표적이며, 이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 통합 이커머스 물류망을 갖췄습니다.

- ㉔ **TES 기술역량 강화:** CJ 대한통운 TES 물류기술연구소는 12 대 핵심기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로봇 기반 자동화, AI·빅데이터 기반 운영최적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 등을 선정하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로드맵을 실행 중입니다[40]. 연구소 규모를 2 배 이상 키우고 외부 기술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기술 도입을 가속화했습니다[40].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크로스보더 AI 최적화 시스템, 지능형 스캐너(6 면 스캔), 디지털 물류관리 플랫폼 등 다수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Agentic AI 기반 자율운영 물류시스템(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물류)도 개발 중이며, 이동형 양팔로봇, 3D 소터, AGV 등 첨단 자동화 라인업을 확보하여 미래 무인물류센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41][31]. 궁극적으로 CJ 대한통운은 “TES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넘어서는 첨단물류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42].
- ㉕ **글로벌 사업 확장 및 포트폴리오 재편:** 국내 1 위 지위를 발판으로 Global Top5 물류기업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M&A 와 JV 를 병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에서 라스트마일·풀필먼트 사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포워딩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재편 중입니다[43]. 예컨대 미국에서는 기존 포워딩 중심에서 현지 CL(계약물류) 사업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높였고[16], 동남아에서는 한류 상품 유통 물류를 공략하며 첨단물류 시스템 수출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31]. 또한 글로벌 거점 국가간 네트워크 연결(Inter-Region SCM)을 통해 다국적 고객사에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합니다.
- ㉖ **조직 및 인재 혁신:** 기술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적 역량 강화와 문화 개선을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7 단계 이상 세분화된 직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연공서열보다 역량 중심의 리더 발탁이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습니다[44]. 파격적인 성과 보상으로 최고 인재 유치 및 유지에 나섰고,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내 11 대 문화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44]. 이렇듯 “91 살이지만 청년기업”을 표방하며 변화에 속도를 내 온 결과, 2023 년 현재 IT 개발 인력의 대폭 확충(자체 개발 인력 비중 증가), MZ 세대 직원 만족도 향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물류사업과 최첨단 기술 R&D 조직이 공존하는 만큼, 이질적 조직문화의 융합이 지속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3.3 차별화 포인트:

CJ 대한통운의 경쟁우위 요소는 크게 **규모·네트워크, 첨단기술, 서비스 다각화, 브랜드 신뢰**로 요약됩니다:

- **(1) 규모의 경제와 전국적 네트워크:** CJ 대한통운은 국내 최다 거점망으로 **당일 처리 능력 800 만 박스 이상**의 허브터미널을 운영하고, **배송기사 2 만여 명** 등 방대한 현장인력을 보유하여 **물류 커버리지와 속도** 면에서 탁월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단가 경쟁력과 처리 안정성**으로 이어져 대형 고객사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 등 초대형 자동화 허브는 타사가 단기간 내 따라오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 **(2) TES 기반 기술력: Technology-Engineering-System&Solution** 의 약자인 TES 는 CJ 대한통운만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물류 자동화 설비 (로봇팔, 자동소터)부터 AI 경로최적화, 빅데이터 수요예측, 물류 IT 시스템**까지 상당 부분 자체 개발·내재화하여 운용합니다[27].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은 외주에 의존하던 IT 시스템을 **2020 년부터 자체 개발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을 **32% 향상**시켰고[45], 택배 소형 상품 자동분류기(MP) 도입으로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46]. **AI 기반 고객맞춤형 솔루션**(예: 수송 복화최적화 시스템, 라스트마일 수요예측)은 **운송비 10~20% 절감** 효과를 내며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47]. 이러한 기술 리더십은 고객에게 **운영 효율 및 비용절감 가치**를 제공하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지션을 구축해줍니다.
- **(3) 통합서비스 및 다각화:** CJ 대한통운은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제조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해외부품 수입 포워딩→공장간 운송→완제품 창고보관→온라인주문 풀필먼트→소비자 택배배송→반품 회수까지 end-to-end** 로 CJ 대한통운이 처리 가능합니다. 경쟁사들이 특정 영역에 특화된 데 비해, CJ 는 **계약물류+택배 연계, 국내+해외 연계** 등 **밸류체인 전체를 커버**함으로써 **규모의 통합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사화물, 프로젝트 물류, 냉동냉장 물류, 국제특송(DHL 과 제휴)** 등 **니치 서비스**도 보유하여 고객 니즈에 세밀하게 대응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 **(4) 브랜드 신뢰와 파트너십 기반:** CJ 대한통운은 **1930 년 설립**되어 한국 물류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만큼, **업계 신뢰도 1 위 브랜드**로 꼽힙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대한통운 택배”**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CJ 대한통운과의 협업이 **품질 보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CJ 그룹 내부 및 계열사(제일제당, CJ ENM 등)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많다는 점도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강점입니다. 그룹 차원의 **K-컬처 행사 물류 지원, 식품 콜드체인 협력 등 내부 파트너십**이 사업 기반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요인 덕분에 CJ 대한통운은 물류업계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며, 대내외 고객으로부터 **"종합물류 솔루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48]. 물론 쿠팡 등 도전자의 부상으로 절대적 우위는 줄었지만, CJ 대한통운만이 가진 **광범위한 역량의 조합**은 여전히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입니다.

3.4 리스크 요인 분석:

CJ 대한통운이 직면한 위험요소는 **외부환경 리스크**와 **내재적 리스크**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 **(1)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압박:** 쿠팡의 공격적인 시장잠식으로 CJ 대한통운의 **택배 단가 인상 여력**이 제한되고 **물량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쿠팡뿐 아니라 이마트쓱닷컴, 마켓컬리 등 e 커머스 업체들의 **자체 물류망 구축** 움직임도 CJ 대한통운의 시장주소득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진, 롯데 등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추격 중이어서, **국내 택배시장 경쟁 강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가 인하 압박**이나 **추가 투자비용 발생** 등으로 이익률 저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TES 기술로 **비용 효율 개선**과 **신규 부가서비스 매출**을 창출해야 하나, 그 효과가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재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2) 노동인력 및 안전 리스크:** 물류는 여전히 **현장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배송기사, 상하차 인력의 근로여건** 문제가 기업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2020~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주 52 시간제** 및 사회적 압박으로 **분류인력 투입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했습니다. 최근 물류센터 연이은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강화되고[33], **안전설비 투자 및 운영중단 리스크**가 대두된 것도 부담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손해배상 및 평판 악화**까지 수반되므로, 안전 리스크 관리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노조 리스크도 있는데,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택배노조와 **분류비용 부담** 등으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으며[49], 향후 **노동조합 협상**에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기술투자 효과 및 사이버 리스크:** CJ 대한통운은 대규모 기술투자를 진행 중인데, **ROI(투자대비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자동화설비 도입으로 처리능력은 늘었으나 경기변동으로 물량이 못 따라주면 **설비 유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개발도 투자만큼 실질 효용(비용절감 or 매출향상)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술 성과가 지연되면 비용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IT 시스템의 **안정성/보안 문제**도 리스크입니다. 물류는 **24 시간 가동되는 실시간 시스템**이므로 **전산 장애** 시 전국 배송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격이나 데이터 유출도 고객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어, CJ 대한통운은 이에 대비한 **DRC(재해복구센터)**와 **보안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4) 거시경제 및 글로벌 리스크:**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물동량 변화**는 포워딩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22~2023 년 해상·항공 운임 급등락 사례처럼, **대외 무역환경**에 따라 매출/이익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16]. 또한 CJ 대한통운의 해외사업 확대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규제 리스크**(해외투자 규제, 현지 노동법 등)와 **환율 리스크**도 잠재합니다.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투자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밖에 물류는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 변동비용 요소도 많아, 유가상승 시 비용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노후경유차 교체, 전기트럭 도입** 등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5) 평판 및 고객 이탈 리스크:** 대형 택배 사고나 잦은 배송지연, 소비자 불만 증가 등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고객 이탈을 부를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과거 **택배갑질 논란**(택배기사 폭언 사건)이나 **연말 물량적체 이슈** 등을 겪은 바 있고, 최근 쿠팡 등 경쟁사가 서비스 품질을 앞세워 소비자 인식을 선점하려는 상황입니다. 만약 CJ 대한통운이 서비스 품질 관리에 실패한다면 **주요 계약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VOC 모니터링, 실시간 배송관제 및 CS 대응 강화** 등 품질관리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CJ 대한통운은 **경쟁격화, 인건비/안전비용 상승, 기술투자 리스크, 대외환경 불확실성**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선제 대응 전략**을 가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사업다각화로 리스크를 완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리스크 대응 전략(비용 효율화, 신규성장으로 돌파)**과 연계하여 자신이 기여할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장. 인재상·조직 문화·채용 특징

4.1 공식 인재상과 핵심 가치:

CJ대한통운이 속한 **CJ그룹**은 **‘하고잡이’**라는 독특한 인재상 키워드를 내세웁니다[50]. **“하고 싶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는 실행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4 대 핵심 행동원칙**으로 **정직, 열정, 창의, 존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50]. **정직**은 기본에 충실한 윤리의식과 신뢰, **열정**은 높은 목표에 대한 도전과 헌신, **창의**는 새로운 발상과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존중**은 동료·고객을 배려하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CJ 는 이러한 가치를 체화하여 **OnlyOne 정신**, 즉 남들과 차별화된 **일류 성과**를 내는 **‘역량 있는 반듯한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50].

실제 채용·평가 과정에서 **인재상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예를 들어 **정직**은 단순히 정직한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를 넘어, **물류 현장에서 투철한 안전의식과 정도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열정**은 야근불사형 워커홀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산업에 대한 애정과 끈기, 문제 해결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추진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창의**는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현장에서의 작은 개선 아이디어나 IT 활용 능력 등 새로운 접근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물류 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협업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현장 근로자부터 경영진, 고객까지 아우르는 소통능력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의식해, 본인의 경험 속 해당 가치 일치 사례(예: 정직 -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 준수한 경험, 창의 - 남다른 아이디어로 효율 개선한 경험 등)를 어필하면 좋습니다.

4.2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

CJ 대한통운은 과거 대한통운 공기업→대기업 계열사를 거친 만큼 전통적이고 경직된 문화 이미지도 있었으나, CJ 그룹 편입 후 적극적으로 젊고 수평적인 문화를 가미해왔습니다. CJ 그룹 차원에서 "91년 전통이지만 청년기업"을 표방하며 직급 파괴와 닉네임 문화 등을 도입했고[44], CJ 대한통운도 이에 발맞춰 직급 체계를 단순화(예전 '과장·차장' 대신 매니저 등 호칭)하고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습니다. 연공서열보다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의 발탁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 30대에 팀장 승진, 40대 초에 임원 발탁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직 분위기는 필드(현장) 조직과 본사 사무 조직 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물류센터나 터미널 부문은 여전히 군대식 조직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근무시간이나 작업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TES 연구소나 본사 기획/지원부서 등은 유연근무제, 자율 복장, 영어 이름 사용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CJ 그룹의 문화 코드 중 "ONLYONE"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초 덕분에, 젊은 사원들도 자기 의견을 내고 프로젝트를 주도할 기회가 많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실제 CJ 뉴스룸 행사에서 신입사원들이 임원 앞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등 소통하는 문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51].

한편 노사관계 측면에서, CJ 대한통운은 민노총 택배노조와 마찰을 빚었던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택배기사 협동조합 등과 대화 창구를 구축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복지로는 그룹 공통의 사내 복지물, 의료비 지원, 카페테리아 포인트 등이 제공되고, 물류업 특성상 야근/특근 수당 등 처우는 업계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물리적 근무환경은 물류센터 현장의 경우 힘든 편이어서 안전과 환경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고, 본사나 연구소 근무환경은 일반 대기업 수준(판교 TES 이노베이션센터 등 쾌적한 오피스)입니다.

4.3 채용 특징과 최근 동향:

CJ 대한통운의 채용은 신입 공채와 수시 채용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통상 매년 상·하반기 CJ 그룹 공채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지원서 접수 → AI 역량검사(CJAT) → 1차 면접 →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2025~2026년 공채에서는 직무별 채용을 강화하여, 지원 단계부터 세분화된 직무(예: TES IT 개발, AI/빅데이터, Robotics, SCM 운영 등)로 모집하고 있습니다[52][53]. 이는 필요한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직무역량을 보다 정확히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특히 **TES 관련 기술 직군** 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2026년 상반기 공채에서는 **IT 개발, AI, 로봇틱스 등 R&D 직군의 비중**이 상당했고[54][53], 이는 곧 CJ대한통운이 **디지털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3~6개월 채용공고를 보면, 신입 공채 외에도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물류기술 기획, 물류센터 자동화 엔지니어, 글로벌 사업개발, 안전관리자** 등을 모집했습니다. 채용 공고문의 어조는 **"혁신 기술", "글로벌 성장", "스마트 물류"**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여, 지원자들에게 **회사 비전과 직무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입니다. 예컨대 TES 부문 채용공고에서는 **"물류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이라고 직무를 설명하며, **데이터 활용 역량과 프로세스 혁신 마인드**를 요구했습니다[55]. 또한 **공통 자격요건**으로 **열린 마음의 소통, 도전정신** 등을 명시하여 **문화 적합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56][57].

서류전형 팁: 자기소개서 문항은 매년 다소 변경되지만,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직무 관련 역량/지식 개발 노력", "본인의 강점 에피소드"** 등이 빈출합니다[58]. CJ 대한통운 자소서 작성시 **물류산업 및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TES IT 개발 직무** 지원자는 **본인이 공부한 IT 기술이 물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습니다. 또한 CJ의 OnlyOne 인재상에 맞춰,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과를 낸 경험(작은 것이어도)을 강조하면 눈에 띕니다. **AI 역량검사(CJAT)**는 CJ 계열 공통으로 실시되며, 문제해결, 성격적합도 등을 평가하므로 사전 준비(모의시험 연습 등)가 권장됩니다.

면접전형 특징: 1차 면접은 실무진 중심 **직무역량/직무기초** 면접이고, 2차 최종면접은 임원단의 **종합역량/인성**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TES 개발 등 기술직무**의 경우 **전공 지식과 논리적 문제해결력**을 면접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 물량 급증으로 배송 지연이 발생한다면, IT 개발 담당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겠는가"**와 같은 **케이스형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원인 파악 및 시스템 개선 방안**(예: 차량 동선 최적화 알고리즘,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등)을 구조적으로 답변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협업 경험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관련 질문도 비중이 높습니다. 물류는 여러 부서와 협업이 필수여서, 면접 때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현업 현장직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등을 물어 **조직 적응력**을 평가합니다. CJ 대한통운 면접에선 지원자의 **열정과 주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물류산업의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라"**는 질문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과의 경쟁, 물류 자동화, ESG 물류** 등 현안을 충분히 공부하고 가면 임원 면접에서 차별화된 견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4.4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역량 키워드:

CJ 대한통운 인사담당자나 임직원 인터뷰에 따르면, **물류 전문성과 DT(Digital**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Transformation) 역량, 그리고 팀워크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Problem-Solving & 주도적 실행:** 예측 못 한 물류 현장 문제에 스스로 원인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능력. 일을 시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과제를 정의하고 끝까지 몰입해 결과를 내는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곧 "하고잡이" 정신이기도 합니다.
- **데이터 활용 및 IT 리터러시:** CJ 대한통운은 물류 데이터의 현장 활용을 강조합니다[59]. 따라서 엑셀, 파이썬 등 데이터 다루는 도구 활용능력이나, IT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재를 선호합니다. 예컨대 물류현장의 작은 개선도 데이터에 근거해 제안할 줄 아는 지원자는 환영받습니다. TES 직군은 특히 프로그래밍/DB 지식, AI 알고리즘 이해도 등이 필수 역량으로 언급됩니다.
- **커뮤니케이션 & 협업:** 직무 불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 잘 되어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입니다. 택배 현장 기사, 고객사 담당자, IT 개발자 등과 원만히 소통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매우 중시됩니다. 조직문화 혁신에서도 "벽을 허물자"를 내세운 만큼[60],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스타일을 가진 인재를 찾습니다.
- **글로벌 마인드:** CJ 대한통운이 글로벌 사업 확대 중인 만큼, 어학능력이나 다문화 이해도도 플러스 요소입니다. 실제 공채에서 글로벌 전형을 따로 선발하여 해외법인 근무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61], 이들은 영어 등 외국어 및 해외 경험을 중시합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라도 본인의 글로벌 감각(교환학생, 해외프로젝트 등)을 어필하면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지향 & 서비스 마인드:** 물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최종 고객의 만족을 위해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태도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과거 경험에서 고객(내부/외부)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춘 사례,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등을 강조하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J 대한통운의 인재상은 도전정신과 실행력을 갖추고, 데이터·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회사가 원하는 이러한 역량 키워드를 자기만의 스토리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장. 직무 분석 - TES(IT 개발)

5.1 TES(IT 개발) 직무의 핵심 역할:

TES(IT 개발) 직무는 CJ 대한통운 TES 물류기술연구소 산하에서 물류 현장의 각종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IT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CJ 대한통운의 물류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엔진 개발자"**입니다. 하루 일과는 일반적인 In-house 개발자와 유사하지만, 그 대상 업무가 **물류 현장**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전일 물류 운영 데이터**(배송완료율, 터미널 처리량 등)를 확인하고 **시스템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긴급 패치를 하거나 사용자 문의에 대응합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단위 업무**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신규 배송 스케줄링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면, 오전에 **물류운영 부서와 미팅**을 가집니다. 현업(운영 담당자)으로부터 현재 스케줄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합니다. 오후에는 **코딩 및 시스템 설계 작업**에 집중합니다. Java 나 Python 등의 언어로 **물류관리시스템(WMS), 운송관리시스템(TMS), 고객용 트래킹 앱** 등 필요한 모듈을 개발합니다. 하루 일과의 끝 무렵에는 **개발 결과물을 테스트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거나 팀원들과 코드리뷰를 진행합니다.

월간 단위로 보면, IT 개발 담당자는 **정기 배포(release)** 일정을 관리하며, **신규 기능 개발 → 테스트 → 배포**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또한 **물류 피크 시즌(예: 명절, 광군제 등)** 전에 시스템 부하 테스트를 수행해 **성과 지표**를 점검합니다. **연간 관점**에서는 신기술 도입이나 대규모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외주로 사용하던 운임정산 시스템을 자체 개발로 전환"**하는 1 년짜리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요구분석부터 아키텍처 설계, 단계적 전환 및 사용자 교육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TES IT 개발자는 **단기적으로 현장 운영을 실시간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5.2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TES IT 개발 직무는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상대합니다. 주요 내부 협업 대상은 **운영 현업 부서**들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사업본부 운영팀**은 배송 현장의 니즈를 전달하는 고객 격이고, **계약물류센터 관리자**들은 창고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협업자입니다. 개발자는 이들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요구를 IT 언어로 해석합니다[62]. **TechOps 팀(서비스 기획)** 등의 내부 기획 부서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TechOps 는 일종의 **제품 매니저(PM)** 역할로, **현장 요구를 정리하여 개발자에게 전달**하고 개발 진행을 조율합니다[63]. 개발자는 TechOps 기획자와 함께 **요구사항 정의, UX/UI 설계** 논의를 거쳐 개발을 수행합니다. 또한 **데이터분석팀, AI 팀** 등과도 공조하는데, 예컨대 AI 팀이 만든 수요예측 모델을 IT 개발 담당자가 **운영 시스템에 통합**해야 할 때 협력합니다.

인프라/보안팀 등 그룹 IT 부서와도 연계합니다.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서버증설이 필요하면 CJ 그룹 IT 인프라 조직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경영진**도 이해관계자인데,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IR 자료나 대외 홍보**로 이어질 수 있어, 개발자는 필요시 경영진 앞에서 성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고객사와 협력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위탁고객이 요구하는 **EDI 연동**을 개발할 때 고객사의 IT 부서와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솔루션 벤더**와의 협업도 많은데, WMS 상용패키지나 물류장비 업체와 **API 연동 작업**을 하거나, SI 업체가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사내 개발자 포지션**으로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공공 시스템 연계**도 있는데, 관세청 통관시스템, 국토부 물류정보망 등과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때 관계기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TES IT 개발자는 **사내 물류 현업 부문, 기획/인프라 조직, 고객사, 솔루션 업체 등 다방면과 소통하며 기술 통역사+개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62]. 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마인드**가 필수라는 점이 이해됩니다.

5.3 필요 역량 (기술·지식·소프트스킬):

TES IT 개발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은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과 **물류 도메인 지식**, 그리고 **비기술적 역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술적 역량:** 우선 **프로그래밍 능력**이 핵심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기술스택은 **Java(Spring 등)** 기반의 백엔드, **JavaScript/React** 등 프론트엔드, **Python/R** 등의 데이터 처리 언어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QL 등 데이터베이스 활용** 역량도 중요하며, 대용량 물류 데이터를 다루므로 **성능 최적화, 알고리즘 구현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경로최적화 알고리즘이나 재고배치 최적화 등 **Combinatorial Optimization** 문제를 코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AWS, Azure)** 및 **DevOps** 지식도 유용합니다. CJ 대한통운이 점차 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Docker), CI/CD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API 설계와 데이터 인터페이스** 역량도 필수인데, 사내 여러 시스템 간 연동이나 외부 e 커머스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RESTful API, EDI 표준** 등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테스트/QA** 능력도 필요하며, 장애 발생 시 빠르게 디버깅하고 조치할 **실무 스킬**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풀스택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류 IT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백엔드 중심의 개발 실력”**이 요구됩니다.
- **물류 도메인 지식:** IT 개발자라 해도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CM, 물류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3PL 프로세스, 택배 운송 흐름, 재고관리 기법 등)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허브&스포크 구조, 피킹·패킹 프로세스, 운송 라우팅**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면 요구사항 파악이 수월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입사 후 OJT 등을 통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지원 단계에서 물류 지식이 있다면 경쟁력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통계** 지식도 도메인 지식에 포함됩니다. 물류 KPI (배송완료율,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OTIF[정시배송률], 재고회전을 등)에 친숙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 스킬:** 앞서 언급했듯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최우선입니다. 개발자가 독립적인 섬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끌어내고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므로, **비개발자와 소통하는 능력**이 절실합니다[62]. 복잡한 기술 용어를 현장 관리자에게 쉽게 설명하거나, 반대로 현장의 막연한 요구를 기술사양으로 명확히 바꾸는 **번역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해결 역량**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물류센터에서 특정 시간대에 병목이 생긴다면** IT 시스템에서 어디가 원인인지 **논리적으로 추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석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스킬**도 유용한데, 개발 일정과 범위를 관리하고 여러 부문과 일정 조율을 해야 하므로 **기본 PM 소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학습 능력**입니다. 물류 환경과 기술 트렌드 모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클라우드 신기술, 오픈소스 도구 등을 **빠르게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업 요구도 계속 바뀌기에 **애자일(Agile)**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대응하는 **순발력**도 중요합니다.

5.4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TES IT 개발 직무의 성과는 일반 개발직무의 KPI 와 **물류사업 기여도 KPI** 두 가지 관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생산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기본 KPI 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납기 준수율**(주어진 개발 일정 내 완수 여부), **버그 발생률/장애 건수**(운영 중 시스템 장애 횟수), **코드 품질**(코드 리뷰 평가, 테스트 커버리지) 등이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만족도**도 중요한데, 예컨대 현장 작업자들이 새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설문평가를 한다면 **UI/UX 편의성 지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특유의 KPI 로는 **물류운영 효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한 IT 솔루션이 **얼마나 운영 지표를 개선했는지**가 곧 성과입니다. 예컨대 새 알고리즘 도입으로 **운송 트럭 공차율을 X% 감소**시켰다면, 그 감소율이나 절감비용이 KPI 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CJ 대한통운은 **IT 개발 내재화로 업무효율 32% 향상** 등의 수치를 내부 성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45]. 따라서 개발자도 단순히 코드만 잘 짜는 게 아니라, **“나의 개발로 현장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외에 **프로젝트 기여도/리딩 여부**도 평가포인트입니다. 난이도 높은 혁신과제를 주도적으로 완료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특허 출원이나 대외 수상**도 성과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TES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로 물류 관련 특허를 획득한다면 개인/팀의 성과로 인정되고, 사내 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예: 차세대 택배시스템 구축)를 무사히 론칭했다면 **그 해의 CJ 대한통운 우수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특별승진이나 포상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평가 시 유의할 점은, **물류현장은 성수기/비성수기 편차가 크므로**, 프로젝트 일정 관리나 성과평가도 **현업 일정과 조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추석 배송대란이 없이 넘어갔다면 IT 시스템 안정 기여로 좋은 평가를 받고, 반대로 시스템 문제로 이슈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 운영 + 지속적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이 직무의 평가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5.5 대표 업무 시나리오 - 예시 워크플로우:

마지막으로, TES IT 개발 직무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일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설 연휴 물량 폭증에 대비한 자동화 물류 스케줄링 시스템 개발”

- ① **문제 인지:** 연휴 2 주 전, 택배 운영부서에서 “허브터미널 야간 작업 시 폭주로 배송차량 출발이 지연된다”는 문제를 TES 개발팀에 제기합니다. 현재는 현장 관리자들이 경험에 의존해 스케줄을 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 ② **요구수집 및 기획 협의:** TES 개발자는 TechOps 기획자와 함께 허브터미널로 찾아가 현장 실사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보니, 밤 10~12 시에 물량이 피크인데 차량 스케줄은 고정돼 있어 병목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현장 관리자, 기획자와 브레인스토밍하여 **“실시간 물류량 기반 차량출발 시각 최적화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요구사항 문서에는 **“실시간 스캔 건수 데이터로 각 행선지별 완료 예상시각을 계산, 차량 출발시간을 동적으로 조정”**이라는 기능을 정의합니다.
- ③ **개발 및 테스트:** 개발자는 이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테이블과 물류 스캔 이벤트 스트림**에 접근합니다. Python 으로 간단한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이를 Java 기반 내부 물류관리시스템에 연동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UI 는 관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 대시보드 형태로 개발합니다. 1 주일 정도의 개발 후, **테스트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해보니, 특정 상황에서 알고리즘이 부정확하게 동작하는 오류를 발견합니다. 이를 수정하고, 결과를 TechOps 기획자와 함께 리뷰합니다.
- ④ **현장 적용 (Pilot) 및 피드백:** 설 연휴 1 주 전, 실제 허브터미널 야간조에 **파일럿 적용**합니다. 개발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스템이 계산한 출발 시각대로 차량을 운영해보도록 지원합니다. 실험 결과, 과거엔 30 분 이상 대기하던 몇몇 노선차량이 **정시에 출발**하고, 전체 완료시간이 **15% 단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에서 예측 미스가 있었고, 현장 작업자들은 초기엔 새로운 지시에 혼란을 느꼈다는 피드백을 줍니다.
- ⑤ **개선 및 정식 배포:** 개발자는 수집된 파일럿 데이터를 분석해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으로 개선합니다 (예: 색상으로 지연 가능성 표시). 그리고 연휴 며칠 전 **정식 버전**을 배포하고, 전국 허브에 공지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시스템이 전국 허브에서 가동되어 **전체 배송 스케줄 준수율을 95%까지**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끌어올렸고, 경영진으로부터 “연휴 물류 대란 없이 성공적으로 넘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발자와 팀원들은 **사내 포상**을 받으며 사기를 높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상이지만, 실제 TES IT개발 직무의 **업무 흐름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현장 문제 발견→데이터 분석→솔루션 개발→파일럿→런칭→성과 측정**.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자는 **현장과 본사를 잇는 가교**이자, **기술 전문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일의 보람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만든 코드 한 줄이 수만 건의 택배를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배송되게 만들 때, **물류 혁신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TES IT 개발자는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가**로서 커리어를 쌓게 될 것입니다[48].

[1] [9] [18] [36] [37] [38] [39] [40] [42] [44] [46] [60] [64] CJ 대한통운 '미래비전' 선언 ... "2.5 조 투자해 혁신기술기업 되겠다" CJ 대한통운 '미래비전' 선언 ... "2.5 조 투자해 혁신기술기업 되겠다" 보도자료 | NOW | CJ 대한통운

https://cjlogistics.com/ko/newsroom/news/NR_00000903

[2] [19] [29] [45] [51] [59] [62] [63] "현장에서 발견한 데이터의 가능성" CJ 대한통운 TES 한승훈님 - CJ 뉴스룸

<https://cjnews.cj.net/%ED%98%84%EC%9E%A5%EC%97%90%EC%84%9C-%EB%B0%9C%EA%B2%AC%ED%95%9C-%EB%8D%B0%EC%9D%B4%ED%84%B0%EC%9D%98-%EA%B0%80%EB%8A%A5%EC%84%B1-cj%EB%8C%80%ED%95%9C%ED%86%B5%EC%9A%B4-tes-%ED%95%9C/>

[3] [4] [11] [12] [13] [17] [20] [21] [22] [23] '한때 1 위였는데...', 택배 성장과 거꾸로 가는 CJ 대한통운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422500414>

[5] [6] [7] [8] [10] [24] 창고 로봇 1만 대 시대... DHL·UPS, '인간 없는 물류'에 73 조 원 쏟아붓는다 | 뉴스 - 초이스스탁 US

https://www.choicestock.co.kr/stock/news_view/106484?bu=

[14] [16] [26] [35] [43] 코리아쇼핑가제트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6590

심층 분석 보고서: CJ대한통운- TES(IT개발)

[15] CJ 대한통운, 3Q 영업이익 4%↑...'주 7 일 배송' 효과 - 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51040>

[25] 오네(O-NE) | 글로벌 SCM 솔루션 | 사업소개 | CJ 대한통운 - CJ Logistics

<https://www.cjlogistics.com/ko/business/parcel>

[27] [28] [30] [31] [41] [47] [48] CJ 대한통운, '에이전틱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물류의 미래 혁신 - TES의 자율 운영 전략 - 더밀크 | The Miilk

<https://themiilk.com/articles/ae3c71e46>

[32] [CJ 대한통운] 사업보고서(일반법인) - KRX 공시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viewer.do?method=search&acptno=20250317001301&docno=&viewerhost=&>

[33] '대학생 감전사' CJ 대한통운, 또다시 노동자 사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5699>

[34] CJ 대한통운, 택배기사에 '초격차 복지' ... 1인 최고 수혜액 연 810만원 ...

https://www.cjlogistics.com/ko/newsroom/news/NR_00001214

[49]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분류인력 지원 방안' 구체화 -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530135.html>

[50] 2025 CJ 인재상 '하고잡이'란? | 핵심가치 및 자소서 작성 방법 - 링크리어 커뮤니티

https://community.linkareer.com/employment_data/4133809

[52] [53] [54] [61] CJ 대한통운 채용공고 -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 자소서 문항, 지원자 스펙 분석까지

<https://jaseol.com/recruit/103202>

[55] [58] 2025 CJ 대한통운 TES IT 개발 자기소개서 자소서... - 레포트샵

<https://m.reportshop.co.kr/rpts/1899543>

[56] [57] TES IT 개발 담당자 - CJ 대한통운 채용 - 비즈니스피플 | 핵심인재 채용 플랫폼

<https://www.bzpp.co.kr/biz/businessDetailView/BR250320A00217>